

“영화로...책으로...5·18공감대 넓혀가야”

5·18 30+1년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3〉 1세대 5·18 영화 제작자 이정국 감독

“국민에 감동 주는 새 작품 구상중”

“영화는 5·18 민중항쟁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입니다. 5·18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월애’ 등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앞서 5·18 민중항쟁을 영화로 재조명한 사람이 있다.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부교수이자 지난 1990년 영화

‘부활의 노래’를 만든 이정국(53·사진) 감독이다. 이 감독은 ‘화려한 휴가’ 등으로 대표되는 5·18 관련 영화를 한발 앞서 만든 ‘1세대 5·18 영화 제작자’로 손꼽힌다. 그가 제작한 ‘부활의 노래’는 유신정권 시절 민주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다.

이 감독이 ‘부활의 노래’를 제작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읽게 된 책 ‘광주의 빛 박관현’ 때문이다. 이 책을 통



해 광주에서 벌어진 5·18의 비극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업영화 감독들이 5·18을 영화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그가 영화를 만든 이유가 됐다.

특히 1980년 5월 당시 목포에서 전경대원으로 복무했던 경험 역시 그가 ‘부활의 노래’를 제작하게 된 또 다른 계기가 됐다. 이 감독은 “(5·18 당시)목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광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면서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로부터 광주의 참상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충격에 휩싸였

역시 밥심

빵보다 운동수행능력 우수

밥이 빵에 비해서 운동수행능력을 증가시키고 고지혈을 억제하는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실험결과 드러났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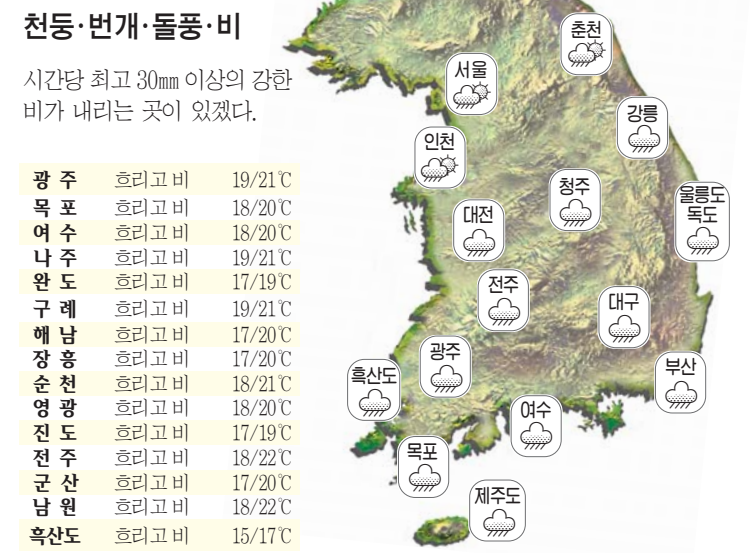
한국식품연구원 쌀소비촉진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단(단장 이현유 박사)은 11일 열린 예정인 농업연구사업단 성과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단에 따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밥이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밥을 먹었을 때 운동지속시간은 ‘456±58.3초’였으나 빵을 먹었을 때는 ‘311±41.9초’였다.

또 고지혈증이 걸린 햄스터에게 밥과 빵을 각각 8주간 먹인 후 혈중 지질함량 등을 분석한 결과 밥 섭취군에서 혈중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농도가 의미있게 감소해 밥의 항고지혈 효능이 확인됐다고 연구단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밥 섭취군에서는 간조직의 지방 축적량이 감소하고 담즙산 배설이 증가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3분 해질 19시 26분 달돋이 12시 31분 달질 01시 07분



시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목욕	07:51 ~ 13:38	00:30 ~ 13:38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주간날씨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최저/최고	17/20	12/23	12/23	11/24	11/24	12/25

보훈청 통화 대기음 ‘팝송’이라니...

민원인들 “연인 간 사랑 표현” 적절성 논란

광주지방보훈청(이하 보훈청)이 청사 내 민원인 전화 통화 대기음으로 재즈음악을 사용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청은 청사 내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일본 출신의 보사노바 보컬리스트 리사 오노(Lisa Ono)의 ‘프리티 월드’(Pretty World)를 사용 중이다.

연인 간의 사랑을 담은 이 노래는 보훈청 직원이 민원인 전화를 받아 다른 직원에게 연결해 줄 때 대기음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나 호국·민주화 관련 기념 및 추모행사 등이 주업무인 보훈청에서 이 같이 사랑을 노래한 재즈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원인 정모(34·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 소개나 평범한 전화 통화 연결음을 해두면 될 텐데, 굳이 재즈 음악을 연결해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노래는 연결해놓지 못할 망정 이 같은 노래를 사용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통신업체와 계약, 통신업체에서 직접 선정된 음악을 우리 청에 연결해 둔 것”이라며 “보훈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인 10일 광주 무각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불자들이 아기 부처를 물로 씻기는 관복의식을 하고 있다.

“화합·평화... 부처님의 자비를”

광주·전남 사찰 석가탄신일 봉축법요식

불기 2555년 석가탄신일인 10일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찰에서 일제히 봉축법요식이 거행됐다. 이번 봉축법요식에는 천주교와 기독교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종교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의미가 더욱 커졌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곳곳에서도 불교하고 무각사 회주 정현

근스님과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전남 불교신도회 김대원 수석부회장, 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요식에서는 천주교의 우니파스 중창단과 기독교 광주무진교회 성가대가 합창을 선보이며 종교화합을 기원했다.

옛 국군통합병원 예술교류센터 안된다

5월 단체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반발

광주시가 5·18 사적지인 옛 국군통합병원에 대해 예술교류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사적지 원형보존을 주장해온 5월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서구 화정동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 10만5595㎡ 중 국군병원 건물 21동 2만1728㎡를 리모델링해 예술 교류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설공연장과 창작공방(미술·공예 등), 예술인 거주단지를 조성해 아시아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센터로 만들 예정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3월 19일 옛 국군통합병원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5월 관련단체들은 “원형 보존을 해 달라”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는 “원형 보존이 유지된 곳은 옛 국군통합병원(사적 23호)과 505 보안부대 옛터(사적 26호) 등 단 2곳 뿐인데, 시가 나머지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아시아 예술인들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예술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5월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꽃집공원의 야생화

잎 모양 깎아내고 벌 많이 찾아 ‘벌개’

〈16〉 벌개덩굴

벌개덩굴은 15~30cm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은 산지나 숲속의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풀꽃과 식물이다.

옆으로 뻗는 원줄기의 각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다음해에 꽃줄기가 되는데, 이 꽃줄기에서 5장의 잎의 나온다.



식물도 벌이 많이 찾고, 잎 모양이 ‘깎아’를 닮아 ‘벌개’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제6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

범 전기인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제6회 광주전기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 5. 14(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 OB맥주 광주공장 운동장

주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주최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광주·전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12 TEL. 062)352-1044 FAX. 062)352-1042

회장 문 유 근 중앙회이사 윤 보 선
부회장 안 일 남 전기신문이사 김 중 철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백 남 길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이사 정 남 기